

## 海外情報

### ◦ 미국, UAN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제안

미국 상무부는 벨로루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UAN에 대해 각각 190% 와 139~234%, 19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생산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9월 27일자 예비 판정은 질산 암모늄 및 요소를 포함해 불공정하게 거래되거나 덤핑 판매 되는 것으로 밝혀진 FSU 질소 비료 생산업체에 대해 미국이 내린 일련의 제재 중에서 최근의 조치이다.

CF산업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류찌는 그러한 결정을 칭찬했으며, 불공정하게 거래된 질 소 제품이 미국 시장을 심각하게 붕괴시켰다고 했다. 질소 솔루션 공정 거래 위원회(CF, 테라 인더스트리, 미쓰비시 화학으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인 류찌는 연방 기관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예비 판정 결과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 기관은 10월 10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수입업체 및 국내 중개업체들은 이번 사례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질산 암모늄에 대해 내린 판정에 유사 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FSU, UAN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로 해 외 공급업체의 선적이 지난 해에는 크게 줄었다.

< Fertilizer Week, 4 October 2002 >

### ◦ Terra, 암모니아 및 질산암모늄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테라 인더스트리는 10월 4일에 영국 빌링햄에 있는 자사의 암모니아 및 질산암모늄 공 장에 대한 1100만 파운드의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정밀검사를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이 감 소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환경 실적을 향상시키고 공장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 고 테라의 현장 관리자인 아샤랴프 말리크가 FW를 말했다.

공장의 설계능력은 암모니아 1,450t/d였지만, 테라는 공장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치를 정하기로 했다. 테라는 조업 중지가 시작되기 전에 비축 물량을 쌓아두었지만, 뜻하지 않게 하드로에서 생산한 10,000t의 암모니아 화물을 구매했다.

그 외에 산업고객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물량으로 암모니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빌링햄에 있는 질산암모늄 공장의 생산은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했지만, 테라는 10월 말에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 가동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하지만 암모니아 공장은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세븐사이드의 암모니아와 질산암모늄의 생산은 정상대로 계속될 것이다. 빌링햄 현장은 암모니아와 질산, 이산화탄소, 질산암모늄에 기반을 둔 비료를 제조한다.

암모니아의 생산량은 약 500,000t/y이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사 전용으로 소비되며, 나머지 절반은 거래 시장에 판매된다.

< Fertilizer Week, 11 October 2002 >

#### ◦ 인도, 요소비료 정책 변화 제출

인도 정부에서 국가의 비료 정책에 대한 추천을 하기 위해 임명한 GoM은 이번 주 경제문제 각료회의(CCFA)에 자신의 제안을 제출했다. GoM은 단위 보유가격안을 가지고 있는 요소 생산업체들을 위한 단위 보유가격안의 교체를 추천했으며, 요소의 유통 및 이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다.

그룹 계획 하에서, 요소공장들은 자회사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보유가격(생산비용 외에 12%의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여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여섯 개의 그룹은 1992년 이전 가스 기반, 1992년 이후 가스 기반, 1992년 이전 나프타 기반, 1992년 이후 나프타 기반, 가열 오일/LSHS 기반, 혼합 에어지 기반 기계이다.

새로운 계획 하에서, 기존의 보유가격이 그룹의 평균 보유가격보다 낮은 요소공장은 기존의 보유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보유가격이 그룹의 평균 보유가격 보다 20% 이하가 높은 요소공장은 그룹의 평균 보유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기존의 보유가격이 그룹의 평균 보유가격보다 20% 이상 높은 요소공장은 그룹

\$

의 평균 보유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공장의 보유가격과 그룹의 평균 가격의 차이 중에서 약 50%는 2003/04년에 공장에 지불될 것이다.

GoM은 또 요소 생산업체들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인도 내의 시장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생산량 중에서 50%를 판매하고 요소 생산업체에 대한 수송 보조금은 2003년 4월부터 50% 정도 삭감한 후에 2004년 4월에 완전히 없애도록 권장했다.

현재 인도의 요소 생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통시키고 있으며, 수송비용을 전액 보조받는다. GoM은 정부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보다 많은 양의 요소를 할당하여 생산업체의 결정에 따라 유통시키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GoM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회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개발 자금 설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지역적 원인에 따른 재무부의 반대에 기인한다.

< Fertilizer Week, 11 October 2002 >

## ◦ 인도네시아, 당분간 요소비료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당분간 요소(水素) 수출에 있어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정했다. 이것은 상사정보가 전한 것으로 이미 금지 방침은 발효되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요소의 수출문제로 지금까지 연말에서 봄에 걸쳐 금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런 반면 상황의 변화 등으로 어느 샌가 해금되는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이 요소문제에 관해 ‘내수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출은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취했으나, 이런 움직임에 관련해서 정부는 ‘요소 수출 금지’를 발령한 것으로, 이내막으로 ‘제조자의 공장 설비 문제로 생산부조의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이 꼽히고 있다.

내수 우선책으로 수출용 분량을 제외시키고, 이것에 의해 언젠가 ‘요소 수출은 금지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최종정책과 함께 공장정비 트러블에 의한 생산 부조’ 때문에 ‘수출 중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 금지방침으로 인도네시아 품목만이 아니라 중동 등의 타 시장 물품의 시황 동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년 9월 24일 >

## ◦ 암모니아와 요소의 국제시황

암모니아와 요소의 금후 국제시황 전도는 이라크 정세의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달려 있으며, 나쁜 방향으로 변동하게 되면 가격상승 등으로 직결, 상당한 상승세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것은 업계 관계자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금주 이후 이라크 정세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론과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둘러싼 국제연합(UN) 사찰 수락에 관련된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암모니아나 요소의 국제 시황은, 암모니아는 흑해 출하물이 매진이 될 암박감 때문에 상승되어 저조함에서 탈피를 하여 FOB는 130달러 수준의 상승세로 변화했고, 한편 요소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변동을 하고 있어 흑해에서는 FOB가 90달러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져 중동산도 100달러대 전반, 인도네시아산은 국내 우선 공급으로 수출은 거의 금수조치가 되어 있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혼미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우선 암모니아나 요소의 가격 문제에 있어 당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라크 정세’이며, 만약 안 좋은 방향(전쟁)으로 전개가 되기라도 한다면 이것을 계기로 수급이 곤란해져 이것을 자극 원인으로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물론 이라크 문제가 최악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미 상승정후를 보이고 있는 중동, 그 외의 원유 가격이나 해상운임 보험 등의 관련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여기다 재고 제품의 보관유지 등으로 인해 급등 할 것은 분명하므로 이런 요인들이 당연히 FOB의 폭등에 덧붙여지게 될 것이다.

이라크와 미국의 논쟁 전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비료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업계는 이 논쟁의 전도에 관해 중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년 10월 7일 >

\$

## ◦ 암모니아 국제시황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는 암모니아 국제시황에 관해 이번 해에 들어 총 C&F 160달러 근변 또는 C&F 170달러 전후의 수준에서 추이하는 것은 아닌 가라고 관계 업계의 관계자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 시황은 재고를 두는 것이 곤란하여 수급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추측대로 추이하게 될 것인가.

암모니아 국제가격은 일전의 저가를 떨쳐버리고 상승세로 전환하여, 예를 들면 흑해 출하물은 FOB 130달러를 예상, 중동산도 그런대로 상승하여, 이 결과 인도에서의 입찰에서도 C&F 160달러대에서 이것을 윗도는 형세로 대만용 네고에 있어서는 C&F 160달러 정도로 지금까지 보다 20달러나 대폭상승을 하는 변화의 상황에 놓여있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미국 Tempa 인도가격은 C&F 160~170달러가 되어 요전의 C&F 155달러(Gulf인도)보다도 상당히 인상된 기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황상승은 당분간 암모니아의 매각이 계속되어 흑해 출하물은 11월까지 매진상태가 계속되는 ‘매물 없음’이나 카리브해의 수급변동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공장 설비 문제, 정수(정기수리)까지 겹쳐 수급을 자극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암모니아 시황의 변동은, 요약해 보면 압박감에 원인이 있는 만큼 ‘올해 내는 C&F 160~170달러 수준으로 이 수준 전후로 보합되는 움직임으로 추이한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가격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맞을지 어떨지 앞으로의 시황 전개/동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년 10월 15일 >

## ◦ DAP 국제시황

최근의 미국 DAP 시황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한발씩 올라가던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춰, 약간이지만 하락 기운을 보임’이라 하며, 그러나 미국 산 곡물시황이 가뭄으로 가격

\$

이 인상되어 이 영향으로 ‘추비의 수요가 활발히 진행되면 또다시 가격인상이 될 것 이다’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사정이 명확해지는 것은 이 달 하순에 열리는 미 TFI 총회에서의 일반 정세나 의견 교환 등으로 확실해 질 것이라고 동 관계자는 보고 있다.

미 DAP 시황은 제조자의 생산조절 강화지속, 내수용 수급의 움직임, 중국 등 해외용 출하 등으로 ‘저가를 탈피하여 가격이 인상되어 최저가격 대비 4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약간씩 올라가던 것이 멈추고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굳이 말하자면 ‘거기서 약간 하락의 경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 하락기운에서 하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파악하지 않아, 곡물 시황의 가격 인상, 이것이 의한 추비의 비료조치로 인한 활성화 예상 등을 포함해서 보면 미 DAP 시황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한발 한발 상승 할 것이다’라는 것이 동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번 달 하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TFI총회에서의 미국 비료정세에 관한 정세교환 등으로 정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동 관계자는 추측한다.

미국의 DAP수출가격은 일전의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춘 분위기에서 약간의 하락으로 이어져, 아직 하락으로 기울 듯 한 기운이 돌고 있다. 가격인상이 계속되던 시황의 피크에 비해, FOB 베이스는 수 달러 내외의 하락으로 기울 것 같아, 이러한 시황에 관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미국비료협회(TFI) 총회에서는 어떤 시점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었는지 관계자들의 귀국 보고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미 DAP 시황 변화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상승세가 일시 정지 한 상태로부터 약간의 하락으로 이어지나, 그 이후 또 다시 한발 한발 상승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미 TFI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의 미국 비료 정세에 관한 정세 교환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TFI 총회는 막을 내렸으나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DAP가격은 피크 때보다 몇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

이 시황이 때마침 미국의 추비 시즌을 맞이해, 미국의 곡물 시황의 상승세와 비료의 관계 등으로 인해 어떻게 전개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불노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조급이라도 내 생각대로 될 것이 있으 면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절혀 불가능할 때, 모든 사람에게서 위압을 받게 되더라도 경청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웠 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 중에서 >